황새

글·사진 李正雨
(鳥類研究家)

學名 Ciconia boyciana
英名 White Stork

지난 8월 23일, 황새 출현이라는 제보를 출장 중이던 농어촌진흥공사 책임연구원 黃鍾瑞님으로 부터 받고, 무작정 전라남도 신안군의 안좌도로 황급히 달려 간것은 겨울철이 아닌 여름철의 텃새 황새가 살아 있다는 일말의 기대 심리 때문이었다.

한반도에서 번식하던 충북 음성의 마지막 텃새 황새 한쌍은 1971년 수컷 한마리가 엽사의 총에 맞아 생을 마친 이후 무정난만 몇년을 애타게 낳던 암컷마져도 농약에 중독되어 구출된 이후 현재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한 많은 양로원 생활을 하는 비운의 새가 되어있다.

그 후 보도기관에 의해 유명한 새가 된 황새는 중국이나 시베리아에서 월동을 하기 위해 겨울철 황새는 적은 수나마 가끔 관찰되기도 하였으나 여름철에는 음성 황새 이후에는 관찰된 일이 없었다.

안좌도에서 첫밤을 보낸 다음날 최근에 만들어진 500ha의 광활한 간척지를 뒤지던 중 한무리의 왜가리와 백로 무리에 섞인 황새 한마리를 운좋게 관찰 할 수 있었다.

거대하면서 우아한 체구에 걸맞게 투박한 부리며 의젓한 행동은 말 못할 감동에 젖게 하였다.

한번 날때는 까맣게 날기도 하였고, 7, 8월에 연중행사로 치르는 털갈이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틀을 관찰하며 인근에 자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무산되었지만 참으로 오랜만에 맛본 평화스러운 감격이었다.

추측으로는 겨울철새로 날아왔던 황새가 몸의 손상으로 번식지인 북녘으로 날아가지 못한 낙오자 일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선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텃새일수도 있으나 그것은 황새 자신만이 아는 일이다.

한 주민의 말에 의하면 간척지 인근에서 몇달째 보았다는 말도 들었으나 인적이 드문 광활한 간척지 수로에 환경의 지표종이라는 많은 숫자의 물총새들과 어울린 황새는 수십년 과거의 환경으로 되돌아간 느낌이었다.

황새는 지구상에 멸종위기에 있는 국제보호조로 국내에서도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이 되어있는 희귀종이다.

세계 최대 번식지였던 소련의 아므르지역에 500여쌍이 서식할 것으로 추정하고 중국의 자롱 보호구에 수쌍이 번식을 하며 이동기에 3,000마리 미만이 관찰된 것이 지구상에 남은 황새의 숫자이다.